

목포시, 2020년부터 노인 취미활동비 지급

김종식 시장 공약사항...매월 10만원씩 지급 추진 관심 집중
수혜 기준·범위 정한 뒤 내년 복지부 승인 후 조례 제정키로

목포시가 오는 2020년 1월부터 노인 취미활동비를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취미활동비 매월 10만원 지급’은 김종식 시장이 지난 6.13선거 당시 내건 공약으로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역 내 핫 이슈였다.

목포시 관계자는 “취미활동비 지급은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협의를 거쳐 복지부 승인을 받은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력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제외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검토를 거쳐 수혜 대상자 기준과 범위를 정한 뒤 내년 말까지 모든 법적 기준을 만들어 빠르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오수 기획복지위원장의 질문에 대

한 답변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취미활동비 지급 문제는 그동안 지역 내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였지만 이번엔 김오수 위원장이 일단 기존 방침에서 진일보한 답변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사무감사의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노인 취미활동비가 실제 지급되기까지는 남아야 할 산이 많다.

현재 목포시 관내 65세 이상 인구는 3만 4710명(10월말 기준)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416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목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수혜 대상자인 어르신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할 지, 아니면 70세부터 적용할지도 관건이다.

목포시 의도대로 추진한다 해도 연간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재원 조달 방안이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면 시행보다는 부분적으로 시행한 뒤 추이를 보가며 점차 확대될 공산이 커 보인다.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노인 취미활동비를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 귀추가 주목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또 취미활동비 지급 방식도 현금 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화폐 발행 역시 김 시장의 공약사항인데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서다.

게다가 올해 목포시 일반회계 중 복지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선으로 취미활동비를 지급할 경우 50%에 달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복지 관련 예산이 과

다 집행될 경우 교부금 페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 김오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취미활동비를 언제 주느냐고 매번 물어와 곤혹스럽다”며 “집행부의 방침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권고 등 93건 지적

노인대학 회계처리 부적정

민간보조금 정산 미흡 등 질타

제11대 목포시의회 개원 이후 집행부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25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 기획복지위원회 33건(시정 6건, 권고 27건), 관광경제위원회 32건(시정 19건, 권고 13건), 도시건설위원회 28건(시정 4건, 권고 24건) 등 총 93건이 지적됐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중 주민 참여 예산제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 대부분이 자생조직위원이나 통장으로 구성돼 참신한 사업 발굴이 어려워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장애인 전통활채어 충전기가 목포시 관내 총 31대 설치돼 있으나 대부분이 관공서와 복지시설에 설치돼 일과시간 이후나 휴일에 이용이 어려워 접근이 용이한 곳에 추가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등에 사업에 우선권을 주도록 명시돼 있으나 관내 23개 장소 중 단 2곳만이 장애인에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간사에게 일괄 지급하고 정기 인사 시 필수 보직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노인대학 회계처리 부적정과 노숙인 시설 후원금 부적정 사용도 적발됐다.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 정산과 관련해 카드 미사용·정산 자료 부족 등이 다수 발견돼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에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전에 보조금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또 항구축제 시 운영하는 음식부스가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축제 수익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르면 매년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으나 거의 모든 업체가 체납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남진 야시장 문화 행사를 위해 매년 시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줄고 매대도 감소한데다가 프로그램마저 제대로 운영이 안 돼 행사장소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6개 시립예술단 가운데 5개 단체가 정원 대비 인원 수가 현저하게 적어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지휘가 3인체제로 이뤄져 단원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임지휘자 체제로 전환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달리도 태양광시설 허가 민원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 구도심에 우량계·적설계 추가 설치, 친환경 건설체 도입 검토, 시내버스 승강장 편익시설 사후 관리 철저, 만인계 웰컴센터 관리 철저, 남행열차 포차 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 지적됐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2021년까지 보조항로 운영

용역금액 총 228억원 책정

목포해수청, 위탁 계약 추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병진)은 내년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보조항로를 운영할 제4기 보조항로 운영용역 계약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목포해수청은 제3기 운영용역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제4기 보조항로 운영용역을, 지역 15개 항로의 국고여객선 14척을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여객선사에 위탁하게 된다. 용역금액은 총액 228억원이 책정됐다.

제4기 보조항로 운영용역은 지난 제3기와 같이 목포권(영광, 신안, 진도) 8개 항로 9척에 152억원, 완도권(해남, 완도, 여수) 7개 항로 5척에 용역금액은 76억원이다.

특히 내년 초 송골·암대 간 연륙 예정임에 따라 신안 주요도서 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지역 보조항로 운영에도 인근 항로와의 연계 등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28일 달리도에 ‘이동 시청’ 뜹니다”

목포시 ‘섬 지역 소통의 날’ 운영
민원·의료봉사단 등 200명 참여

목포시가 28일 ‘섬 지역 소통의 날’ 운영을 위해 달리도를 찾아가는다.

25일 목포시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과 민원·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한 이동시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도 이동시청에는 종합 민원처리반을 비롯해 의료 봉사반, 전기·가스 점검반, 영농·영여 상담반, 농기계 수리반, 이·미용 서비스반 등 12개 반 200명의 공무원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

특히 이날 목포시는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섬 주민들의 건강진단을 위해 보건소와 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 민·관

합동 의료 봉사반을 편성해 침·뜸 한방치료, 치아 검진, 골밀도 검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경운기 등 농기계 점검 수리와 함께 방역·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 가구 등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점검 및 노후화된 부품 교체 작업도 벌인다.

이날 김종식 목포시장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1시간동안 갖고 슬로우 시티 조성, 어촌 뉴딜 300시책 등을 설명한 뒤 경로당과 불우 이웃 등을 방문해 위로할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총 13차례 실시된 이동시청은 어업 활동과 농번기를 감안해 읍·도와 달리도 등 2개 섬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시설 개선



목포시의료원이 수술실 낙후로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문제가 발생해 17억원을 들여 수술실 시설개선과 함께 신규 장비보강에 나선다.

17억 투입 의료서비스 강화

전국 지방의료원 중 가장 모범적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목포시의료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장비 현대화와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25일 목포시의료원은 수술실 낙후로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문제가 발생해 수술실 시설개선과 함께 신규 장비보강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의료원에 따르면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자동 소변 분석기, 기구 세척기, 혈액은행 검사기는 신규로 구입하고 초음파 진단장치, 유방 촬영기, 자동 생화학 분석기 등은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 692㎡에 달하는 중앙공급실 환경도 개선한다. 목포시 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낙후된 시설과 의료장비가 현대화되면 서남권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기

능 강화는 물론 경쟁력 강화로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 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 우수기관, 지역응급 의료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우수기관(B등급)으로 선정됐고, 국민 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지방의료원 청렴도 평가에서도 2등급 평가를 받는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한편 목포시 의료원은 올해도 의료취약계층 무료 검진 2000명, 아동 복지시설 무료검진 600명, 만성질환관리 사업 800명, 찾아가는 산부인과 무료 검진 1200명, 외국인 근로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무료 검진 200명, 저소득층 보건의료 지역연계 사업 400명, 공공 보건프로그램 사업 100명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